

런던 AA 건축학교, 'AA XX 100' 행사 개최

임지선

Workshop Lim 대표



1918년 AA저널에 실린 최초 여학생들 실루엣

자료: AA Women in Architecture 1917-2017, AA Publication, London. p.12.

AA 건축학교와 AA 여성

영국 런던에 소재한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이하 AA 건축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건축 교육기관으로 1847년에 설립되었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학풍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가·이론가·비평가·교육자 등을 두루 배출하였다. 스타 건축가로 불리는 렘 쿨하스(Rem Koolhaas),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자하 하디드(Zaha Hadid) 등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

AA 건축학교는 오랫동안 남성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였다. 설립 후 무려 70년이 지난 1917년에야 4명의 여성에게 처음으로 입학을 허가하였다. 루스 라우이(Ruth Lowy), 위니프레드 라일(Winifred Ryle), 아이린 그레이브즈(Irene Graves), 질리언 쿡(Gillian Cooke)가 바로 그들이었다.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는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는 시대적 배경 이외에 실질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남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 있다. 둘째는 런던의 심장부인 베드퍼드 스퀘어(Bedford Square)로 교사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입학을 허가하기는 하였으나 할당제를 도입하여 한동안 여학생 정원을 제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처음으로 남녀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해지기도 하였고, 전후 여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늘날에는 남녀 학생 비율이 50대 50에 이르고 있다.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택 등 소규모 건물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소품장식에 더 적합하고 대규모 건물은 설계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비계에 오를 만큼 강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작업자를 다루는 데 미숙할 것이라는 등 각종 편견에 부딪쳐야 하였다.

그럼에도 AA 여성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엘리자베스 스콧(Elisabeth Scott)은 1928년 열린 셰익스피어 메모리얼 극장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되어, 프로젝트 진행 시 다른 여성 건축가를 고용하여 협업하였다. 모더니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제인 드류(Jane Drew)의 이름을 딴 '제인 드류 프라이즈'는 디자인과 다양성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여성 건축가에게 매년 수여된다. 종전 후 새로운 건설 기술을 도입

해 학교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팻 틴데일(Pat Tindale), 활발한 교육·저술 활동을 했던 데니스 스콧 브라운(Denise Scott Brown), ‘런던아이’의 설계자 줄리아 바필드(Julia Barfield), 하이테크 디자인 작업으로 유명한 패티 홉킨스(Patty Hopkins),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을 디자인한 파시드 무사비(Farshid Moussavi) 등 많은 AA 여성들이 세계 각지,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 중이다.

AA XX 100

2017년은 AA 건축학교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입학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고자 2013년 가을부터 일련의 건축가, 학생, 역사학자가 모여 행사 준비를 시작하였고, 활동 중인 여성 건축가들은 참여와 기부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AA 건축학교를 의미하는 AA, 여성의 성염색체 구성인 XX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숫자 100을 합쳐서 ‘AA XX 100’이라는 타이틀도 만들어졌다.

2014년 5월 론칭 이벤트를 필두로 다양한 형식으로 행사가 열렸다. 건축 디자인, 역사, 교육 및 도시설계 등 각 분야에 걸쳐 젠더 이슈를 다루는 대담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건축가 및 아시아계 여성 건축가의 작업 공유, 오늘날 젊은 건축가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 여성 건축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워크숍 등이 2017년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열렸다.

역사학자 엘리자베스 달링(Elisabeth Darling)과 린 워커(Lynne Walker)가 기획자로 참여한 ‘AA Women in Architecture 1917~2017’이라는 전시가 AA 갤러리와 멤버스 룸에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초창기 여학생 입학허가와 관련된 서신, 초기 학생 작업 및 현재 활동 중인 여성 건축가의 작업이 사진·모형·도면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AA 건축학교에서 수학하였거나 가르쳤던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작업을 모은 영상과 구전 역사를 담은 인터뷰 등이 전시장을 채웠다.

2017년 11월에는 ‘AA XX 100: AA Women and Architecture in Context 1917-2017’이라는 타이틀로 건축계 젠더 이슈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 국제 콘퍼런스가 3일간 폴 멜론 센터(the Paul Mellon Centre)와 AA 건축학교에서 열렸다.

‘AA XX 100’가 남긴 것

“여성 건축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제자 중에서는 여학생이 늘 출중하였는데 어쩐 일인지 졸업하고 실무를 하다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2012년 AA 건축학교의 한 리뷰에서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의 공동 창립자이자 교육자인 엘리아 쟁겔리스(Elia Zenghelis)는 이렇게 말하였다.

AA 건축학교와 많은 건축대학에서 여학생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지만, 영국에서 실무 중인 등록건축사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16년 현재 겨우 26%이다.* 36년 전 7%였던 것에 비하면 크나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 의료인의 비율이 46%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데니스 스콧 브라운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어쩌면 여성 건축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절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일 거라 말하고 싶습니다. 경력의 초기 단계라면 남녀 건축가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점점 경력을 쌓고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천장은 점점 더 견고해져서 현실적으로 타격을 주거든요.”

40대 미만의 젊은 여성 건축가와 40대 이상의 기성 여성 건축가가 체감하는 희망과 성 평등지수가 사뭇 다르게 드러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년 영국 건축 잡지 <Architects Journal>은 ‘Women in Architecture Survey’를 실시한다. 결과가 꾸준히 보여주듯이 많은 여성 건축가가 남성 건축가보다 낮은 임금과 유리천장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성토했다. 지난 100년간 분명히 진보는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AA XX 100’은 AA 건축학교 내 여학생의 역사뿐 아니라 20~21세기 영국 및 세계 각지 여성 건축인의 역사와 현실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건축계의 성 평등 이슈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동시대 건축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변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2016 Report